

광주·전남 체감경기 '사상 최악'

2분기 소비자경기지수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韓銀 "고용부진 맞물려 경기위축 전방위 확산"

물가급등과 고용부진 등의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현재 및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가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만큼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4분기 현재 광주·전남의 현재 경기판단지수(CSI)는 41로 나타났다.

이는 1·4분기(64)에 비해 23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지역별 통계가 나온 지난 2004년 2·4분기 이후 최저

치다. 경기판단지수가 기준치(100)를 밑돌수록 현재 경기가 6개월 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음을 의미하는데 지역 소비자들의 지수는 절반이하 수준이다.

소득별로는 100만~200만원대 소비자의 경기지수가 39까지 '곤두박질' 했으며, ▲200만~300만원(41) ▲300만원 이상(42) ▲100만원 미만(44) 등으로 모든 계층에서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광주·전남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4분기 현재 광주·전남의 경기전망CSI는 55로 1·4분기

(81)에 비해 26포인트나 급락했다.

이처럼 경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은 올 들어 기름값 등 물가가 크게 치솟은 가운데 고용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여러 악재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2·4분기 광주·전남의 물가수준전망CSI는 1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4분기(145)에 비해 13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지역 소비자들의 고물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은 또 고용사정 개선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분기 광주·전남의 고용

사정전망CSI는 65로, 전분기보다 21포인트나 떨어질 만큼 경기위축의 '불뚱'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2·4분기 현재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86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분기보다 19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2000년 4·4분기(86)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 지수 하락폭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3·4분기(-24포인트) 이후 최대 폭을 나타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물가급등과 고용부진 등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의 가계사정 및 경제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득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될 경우 이같은 심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굿디자인상' 中소 하우징 제품 망라 광주디자인센터, 상설 전시장 개관

광주디자인센터 하우징자재혁신사업단은 26일 '2008 굿디자인상'을 수상한 지역 중소기업의 하우징 제품의 상설전시장을 개관한다. <사진>

디자인센터 3층에 문을 여는 전시관은 274㎡ 규모에 욕실용품과 주방용품, 조명기기, 커튼 등 하우징 관련제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동영산업의 한글캘리그래피 도어, 주식회사 은하의 신개념 레인지 후드 등 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들이 선보인다.

디자인센터는 상설 전시관 개관과 함께 국내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제품 홍보 및 관련 지원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해 지식경제부의 광주지역 하우



징자재산업육성 혁신시스템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국비 30억원 등 총 54억원 규모로 기술개발, 디자인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세금과 친해지는 즐거운 버스여행 광주세무서, 어린이 초청 세금버스 투어

광주세무서(서장·배춘호)는 최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소재 일맥원 어린이 23명을 초청, 미래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올바른 세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세금버스를 운행했다. <사진>

광주~곡성간 버스에서 광주세무서는 세금퀴즈와 '세금이야기'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증기기관차 안에서는 곡성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경찰차 타기, 무전기 통신 등 '1일 경찰체험'을 했으며 곡성섬진강 전문대에서는 별자리 이야기를 들었다.

배춘호 세무서장은 "어린이들이 꿈과 사랑을 안고 사회가 요구하는 뜻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한다"며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전 영 일 코리아디지털 대표

제어기기 분야 세계 수준 도약

올 매출 130억 목표 내수보다 수출 주력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6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상' 시상식이 25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전영일 코리아디지털 대표,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올해는 내수보다 수출에 전력, 광주라는 지역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가전 및 산업용 제어기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코리아디지털(주)(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능주농공단지) 전영일(47) 대표가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하는 '6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상'을 수상했다.

전 대표는 "전체 100여명의 직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연구인력,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10% 수준인 10억여원을 신제품·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00만불에서 올해 300만불까지 수출액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설립부터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 제패를 선언해온 코리아디지털은 냉난방용·냉온수용 제어기기를 개발해 관련업계에서 선종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자사 브랜드상품인 MBL(컴퓨터 기반 과학실험장치)를 개발, 연간 130억원 매출을 올리는 성장동력으로 만들기도 했다.

코리아디지털은 2002년 '사이언스 큐브'라는 압력센서를 개발, 50여종의 관련센서를 국내외 시장에 출시해 132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2007년에는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등에 213만 달러 규모를 수출, '기술 코리아'의 인식을 깊이 심어주기도 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코리아디지털의 열정은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최근 21명의 연구인력을 풀가동, 차세대 전략상품인 이산화탄소 센서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하는 개가를 거뒀다.

이와 함께 고려대·호남대 등과 산학협력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지형인식 가능한 이동로봇 제어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와 '프리미엄급 디지털 생활가전산업' 발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수출을 포함해 113억원의 매출을 올린 코리아디지털은 올해 130억원을 매출목표로 설정해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동양제철화학, 폴리 실리콘 생산 시설 늘린다

8,800억 투입 내달 3공장 건설 착수... 2공장 증설도

동양제철화학(대표이사 백우석)이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원료인 '폴리 실리콘' 생산공장을 추가 증설한다.

동양제철화학은 8천800억원을 투자해 군산공장 부지내에 다음달 착수, 2009년 12월 완공할 계획이 다.

또한 현재 가동중에 있는 5천t 규모의 제 1공장 생산능력을 공정

개선에 의해 1천500t 추가 증설과 동시에 1만t 규모로 건설 중인 제 2공장에 2009년 6월까지 2천600t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번 대규모 증설은 폴리 실리콘의 공급 부족 해소와 장기적으로는 폴리 실리콘 가격 하락에 따른 태양광 산업 수요를 촉발시켜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연

30% 이상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 실리콘'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며 "이번 추가 증설이 완료되면 2010년부터 연산 총 2만6천500t의 생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폴리실리콘 업계내 2위 업체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리 실리콘'은 웨이퍼→태양전지→태양전지 모듈→태양광 발전소로 이어지는 태양광 관련산업의 핵심 기초소재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동양의 허반이 HAINAN

무안 ↔ 하이난(심야)직항 매주 수,토 7회 한방 ₩899,000~
7/26, 7/30, 8/02, 8/06, 8/09, 8/13, 8/16출발

무안 ↔ 장사(장가게)직항 매주 일,목 8회 한방 ₩749,000~
7/24, 7/27, 7/31, 8/03, 8/07, 8/10, 8/14, 8/17출발

문의전화: 02-6000-1111, 02-6000-1112, 02-6000-1113
www.himdb.co.kr

동양의 무몽여행, 장가게

NAVER

광주·전남·충남·충북·충청·경남·경북·대구·대전·전북·전남·전라·제주